

Spain, Latin America

미래의 멕시코와 향수 속의 칠레

송병선 _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금년 2월에 중남미에서는 중남미 소설을 대표하는 두 작가의 작품이 출간되었다. 멕시코의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독수리 의자》와 이사벨 아옌데의 《칠레, 내가 만든 나의 조국》이 바로 그것이다.

푸엔테스의 《독수리 의자》는 빌 클린턴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클린턴은 “당신네 나라에는 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푸엔테스는 “멕시코에 부통령이 없는 이유는 19세기의 모든 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쿠데타를 부추겼거든요”라고 대답했다.

멕시코 대통령의 의자를 의미하는 《독수리 의자》의 무대는 2020년의 멕시코이다. 그곳은 통신이 두절되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수석보좌관의 의견에 따라, 로렌소 테란 대통령이 마약과 투쟁한다는 명분으로 얼마 전에 콜롬비아를 침공했던 미국에게 군대를 철수할 것과, OPEC 국가들의 원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멕시코 원유에 지불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미국의 여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 현재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 는 즉시 보복에 나서고, 수십년 전부터 멕시코의 통신망을 지배하고 있던 플로리다의 회사를 통해 멕시코의

모든 통신망을 두절시켰던 것이다.

통신망 두절이란 암흑기를 이용하여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충성심이란 찾아볼 수 없다. 권력을 얻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를, 아내는 남편을, 국무장관은 대통령을 배신한다. 동시에 옛 토후들은 잔인한 짓을 일삼고, 대통령 측근들은 스파이로 활동한다. 또한 야비한 책략과 성 고문도 등장하며, 심지어는 모두가 몇 년 전에 살해되었다고 믿었던 대통령 후보가 정치 무대에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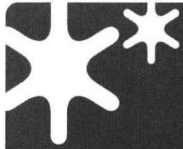
한편 2월 7일부터 중남미의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사벨 아옌데의 《칠레, 내가 만든 나의 조국》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관점으로 그녀의 개인사와 조국의 역사를 점검하고 있다. 아옌데는 28세에 조국 칠레를 떠났고, 1987년부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칠레를 “마음속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다. 이 작품은 향수와 거리라는 두 개의 중심요소를 갖고 있다. 그녀는 향수를 통해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고, 조국과의 거리는 이 작품을 쓰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 대해 아옌데는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 조국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작품은 소설, 회고록, 수필, 혹

은 여행기와 같은 다양한 장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몇몇 편집자들은 종교, 역사, 칠레의 사람들과 같은 주제로 구분하여 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작가는 “기억은 도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되며 작용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분류를 거부했다고 한다.

아옌데는 너울거리는 기억을 통해 인종주의와 계급주의가 “어금니처럼 뿌리박은” 조국을 탄생시킨다. 이런 조국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영혼의 집》을 쓰게 만든 일화를 비롯해 어린 시절의 일화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음식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조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에, 아옌데의 “마음 속의 조국”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녀의 마음이 칠레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나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새로운 땅에 적응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마도 아옌데가 새로운 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뿌리에 항상 조국의 흙이 묻어 있고, 항상 그 흙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일 것이다. **◆**



21세기 감각에 맞게 되살린 프로이트

박해현 _ 조선일보 파리특파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프랑스에서 새롭게 번역되고 있다. 프로이트가 1899년 11월 10일 출간한 《꿈의 해석》이 최근 프랑스 대학 출판사(PUF)에서 새로운 완역본으로 나와 상반기 인문학 출판계의 일대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프로이트는 20세기 개막을 앞두고 펴낸 《꿈의 해석》이 펼쳐보일, 새로운 인간 이해의 지평을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책의 출간년도를 1900년으로 표기했다. 비록 19세기말에 펴내지만, 그 책의 의미는 철저하게 20세기적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꿈의 해석》 출간은 20세기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프랑스의 새 완역본은 20세기의 고전을 21세기에 정면으로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에서 《꿈의 해석》이 처음 번역된 것은 아니다. 첫번째 불역본은 1926년 《꿈의 과학》이란 제목으로 나왔고, 이어서 《꿈의 해석》이란 원제를 살린 불역본은 1967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를 독일어로 읽지 못하는 해외의 독자들은 대부분 영어판을 선호했다. 영어가 국제어인 시대인 탓도 있지만, 영국에서 30여년 전에 이미 프로이트 전집 정본이 나와, 국제적으로 그 전집을 논문에 인

용해도 통용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의 정신분석학계에서도 영어판 번역본의 명성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1989년부터 정신분석학계의 총력을 모은 프로이트 재번역 작업이 시작됐다.

프랑스어판 새 전집은 총 21권으로 구성됐다. 그 유명한 《정신분석입문 강의》 등 12권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엔 《꿈의 해석》(756쪽)이 13번째로 출간된 것이다.

불어판 《꿈의 해석》은 전집 번역편집위원회의 원칙에 따라, 일부 용어에서 기본 번역본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기존 번역본에서 Desir(욕망)는 Sohait(바람)으로, Imaginer(상상하다)는 Fantasier(환상을 갖다)로, Faute(과실)는 Coulpe(죄과)로 각각 바꿨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지나치게 운색해서 번역하는 것은 피하더라도, 그 문맥에 상관없이 프로이트의 용어를 보다 더 프랑스어에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번역진은 설명했다. 또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에서 사용한 Bedeutung이란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Signification(의미)와 Importance(중요성)을 동시에 뜻하는데, 새 번역본은 그 두 뜻을 모두 살릴 수 있는 Significativite(의

미성)이란 다소 생소한 단어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번역어는 요즘 신문 잡지 등에서 두루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교생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번역진의 설명이다. 이 전집 번역의 기본 원칙은 《프로이트 번역하기》라는 별도의 단행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프랑스어판 전집의 총책임자인 정신분석학자 장 라플랑슈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어에 두루 능통하고, 번역에 관한 한 까다롭기로 유명한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이 번역 원칙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프로이트 재번역 운동은, 20세기를 풍미한 인문학의 고전을 21세기의 감각에 맞게 되살린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고전이란,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읽은 책이 아니다. 한국의 외국 문학이나, 인문사회학에서도 학계의 정수를 모은 고전 재번역 작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책벌레의 정신분석학이란 것이 있다면, 이런 욕망으로 가득찬 무의식의 풍경을 보여주지 않을까. ■